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김 춘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안아오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시는 과정에 주체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로 옮긴때로부터 이룩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는 다 당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영화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로 옮긴 작품들이 바로 우리 영화예술의 전통을 이루는 뿌리로 됩니다.》

주체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하는 문제는 1960년대 중엽에 이르러 더는 미룰수 없는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 시기 우리 당안에 잠입하여 동상이몽하고 양봉음위하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혁명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속에 형형색색의 오가잡탕을 끌어들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다보니 해방후 20년이 되어오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에 옮기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시 영화부문에서 나타나고있던 이러한 심중한 문제점들을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7(1968)년 4월 18일 백두산창작단 창작가들과 하신 담화를 비롯한 여러 담화와 교시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문학예술작품들을 불후의 고전적명작으로 정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체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의 중요성과 원칙적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7(1968)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문예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그것을 통하여 영

화예술전반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는것은 로동당시대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의무이며 더없는 영광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원작에 충실하는것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데서 나서는 첫째가는 요구이며 근본원칙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원작을 영화예술의 형태상특성에 맞게 옮길뿐아니라 원작의 감정세계를 그대로 살리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기 위한 원칙을 명확히 밝혀주시으로써 우리 영화예술을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는 혁명적영화예술로 강화발전시키고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이룩해나갈수 있는 명확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주체영화예술의 본보기작품으로 훌륭하게 창작완성하도록 하신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혁명적영화예술의 본보기를 마련하는 거창한 창조사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예술영화 《피바다》창작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작품들가운데서도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명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7(1968)년 4월 창작가들을 부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기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는 그동안의 준비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우리 문학발전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것이 가지는 인식교양적의의를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피바다》를 예술영화로 옮기는 목적과 그것을 손색없이 옮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기는데서 원작에 기초하여 영화문학을 손색없이 창작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8(1969)년 6월 예술영화 《피바다》연출대본과 창작단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배역안을 하나하나 검토하시고나서 몸소 주인공역도 선정해주시였으며 배우들의 연기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연출작업에서 기본은 배우와의 작업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 연출가는 원작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배우들에게 깊이 파악시켜야 하며 연출의도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한달이고 두달이고 배우들을 계속 훈련시켜 배우들의 역현상이 완전히 무르익은 다음에 촬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 《피바다》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영화음악이 명곡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화에 넣을 노래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이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촬영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1930년대의 시대적분 위기에 맞게 전례없는 큰 규모의 야외촬영장도 여러곳에 꾸리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으며 촬영도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8(1969)년 8월 29일 평양시 력포구역 무진리(당시)별관에 나오시여 불타는 간도마을촬영을 지도해주시면서 영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굶은비내리는 날에도 갈밭속에서 찬비를 맞으시며 촬영을 지도해주시였고 때로는 실내촬영장에서, 때로는 록음직장에서 영화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끼니마저 번저가시면서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 《피바다》의 창작과정을 무려 120여차례나 지도하시여 원작의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높은 예술적형상수준을 손색없이 옮겨놓은 주체영화예술의 본보기로 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예술영화 《피바다》가 창조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과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력사적뿌리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게 되였으며 영화혁명수행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꽃파는 처녀》를 예술영화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련이어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재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불후의 명작으로서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나게 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려 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원작을 손색없이 영화로 재현하자면 창작단의 모든 성원들이 작품의 사상에술적특성을 옹계 리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주체59(1970)년 2월초 몸소 예술영화촬영소에 나오시여 창작단성원들을 몸소 선정해주시고 연출대본수여식도 조직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이 매우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조건에서 연출대본을 잘 연구하지 않으면 촬영준비도 제대로 할수 없으며 당의 의도대로 영화를 제기일에 훌륭히 만들어낼수 없다고 보시고 창조성원들이 작품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하는 묘술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예술창조에서 보수주의, 신비주의를 뿌리빼고 문학예술의 일대 양양기를 펼쳐놓으실 결심을 하시였다.

주체59(1970)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단의 현지촬영준비정형을 료해하시고 이 영화를 4월 15일까지 완성하여 내놓으려면 영화를 빨리 찍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

야 수정문제가 제기되어도 여유있게 처리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영화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자면 창작준비를 철저히 하고 창작단성원들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다음날 촬영현지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방당일군들에게 창작단성원들의 창작조건은 물론 건강관리와 식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잘 돌봐줄데 대한 교시를 주시면서 연출가들에게는 속도전을 벌린다고 하여 질을 홀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질을 떠난 속도전이란 무의미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창작단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야외촬영에서는 하루 80m가 기준이지만  $-30^{\circ}\text{C} \sim -40^{\circ}\text{C}$ 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도 하루 평균 250m, 최고 300m의 영화장면을 찍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영화창작을 위해 무려 100여차의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고 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여 단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혁명적대작으로, 속도전의 본보기작품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9(1930)년 오가자에서 창작공연하신 작품으로써 깨끗하고 순박한 처녀의 형상을 통하여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들이 혁명적으로 각성되어 투쟁의 길에 나서는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준 명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0(1971)년 3월 창작가들을 부르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원작에 대한 각색작업을 지금부터 하여야 할것같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창작가들을 다른 나라에까지 보내시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기 위한 각색작업과 사료수집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영화창작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중심고리는 인정심리극으로서의 원작의 사상예술적특성을 옹게 살려 인물들의 심리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특히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잘 그리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영화창작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섬세하고 깊이있는 세부형상에 대하여서도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가들에게 백에서 하나를 고를줄 알고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는 세부형상의 비결을 일깨워주시면서 원작의 주옥같은 세부형상을 손색없이 재현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는 인정심리극의 본보기작품으로 창작완성되어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교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 주체영화예술의 본보기작품들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우리 영화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 1970년대 전반기의 몇년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주체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영화예술력사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영화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됨으로써 그에 토대하여 주체시대 혁명적영화예술은 사소한 편향도 없이 확신성있게 전진해 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수많은 성과작들이 창작되게 되었다.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우리 나라 영화예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훌륭한 명작, 력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